

## λέπρα의 우리말 번역에 대한 제언 — ‘예수께서 λεπρός를 깨끗하게 하시다’(막 1:40-44; 마 8:1-4; 눅 5:12-14)를 중심으로 —

조지윤\*

### 1. 들어가는 말

번역은 주로 언어의 문제이지만, 그 언어와 함께 살아 있는 문화의 표현이기도 하다. 하나의 번역어가 성경 번역의 역사에서 살아남고 유지되기 위해서는, 그 문화 자체에서 그 번역어가 받아들여지고 사용될 수 있는 수용성이 있어야 한다. 한편 수용된 번역어는 새로운 문화를 형성하기도 한다. 이때 독자 공동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성경전서 개역한글판』(1961년)의 ‘문둥병’과 ‘문둥이’, ‘문둥병자’는 대표적인 차별어<sup>1)</sup>로 알려져 있다. 이에 상응하는 그리스어가 λέπρα와 λεπρός

\* Vrije Universiteit Amsterdam에서 신약학과 번역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음. 현재 대한성서공회 번역실/성경원문연구소 국장. [jyc@bskorea.or.kr](mailto:jyc@bskorea.or.kr). 이 글은 2021년 5월 22일에 개최된 한국여성신학회 2021년 5월 정기학술제 “치유와 여성신학”에서 발표된 논문이다.

1) 『개역개정』에서는 1961년 『개역한글』의 차별 언어와 기피 용어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 바가 있다. “‘문둥병’은 ‘나병’으로, ‘소경’은 ‘맹인’으로, ‘굽사등이’는 ‘등 굽은 자’로, ‘난쟁이’는 ‘키 못 자란 사람’으로, ‘절뚝발이’는 ‘다리 저는 자’로, ‘병어리’는 ‘말 못하는 사람’으로, ‘귀머거리’는 ‘못 듣는 사람’으로, ‘얇은뱅이’는 ‘못 걷는 사람’으로, ‘불구자’는 ‘장애인’으로, ‘병신’은 ‘몸 불편한 사람’” 등으로 표현을 바꾸었다(민영진, 『개역개정판, 이렇게 달라졌다』 [서울: 대한성서공회, 2000], 57). 이 외에 성경 번역에 있어서 장애인 호칭에 관한 연구에는 채은하, “장애인의 시각에서 본 한글 공인 번역 성경들의 장애인 호칭과 대안”, 『성경원문연구』 30 (2012), 140-160; 채은하, “한글 공인 성경들의 장애인 호칭과 대안 -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 『성경원문연구』 34 (2014), 162-180; 채은하, “장애인 호칭의 비교와 대안 연구 - 히브리어 성경, 칠십인역과 한글 공인 번역 성경들을 중

이다. 문화 인류학적으로 보았을 때, 당시에 ‘문둥병’은 그리스어 λέπρα에서, ‘문둥이,’ ‘문둥병자’는 λεπρός에서 옮길 수 있는 가능한 번역이었으나, 지금은 한센인들에게 말할 수 없는 모욕감을 주는 차별어이다. 이 어휘들은 공관복음에서 예수의 치유 사역과 관련하여 13회 나온다(마 10:8; 11:5//눅 7:22; 막 1:40-44//마 8:1-4//눅 5:12-14; 막 14:3//마 26:6; 눅 4:23-24, 27; 눅 17:12-19). 『성경전서 개역개정판』(1998년)에서는 ‘나병’과 ‘나병환자’로 개정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λέπρα의 정체를 규명하여 현시대에 가장 적합한 번역어를 찾을 것이다. (1) 먼저 λέπρα의 우리말 성경 번역 역사를 살펴보면 각 번역어의 국어적, 사회적 의미를 고찰해 보고, (2) λέπρα의 상응어인 구약성서의 נַעֲרָא와 한센병과의 관계, (3) 또 λέπρα가 영어 ‘leprosy’(나병)가 된 역사를 살펴본 후에 (4) λέπρα가 나오는 신약성서 본문 중 공관복음 모두에 나오는 ‘예수께서 λεπρός를 깨끗하게 하시다’(막 1:40-44; 마 8:1-4; 눅 5:12-14)를 중심으로 (5) λέπρα의 새로운 번역어를 제안할 것이다.

## 2. λέπρα의 우리말 성경 번역

λέπρα의 우리말 성경 번역 역사를 보면, 첫 번역에서 나타났던 어휘가 사라지고 또 다른 어휘가 사용되어 오랫동안 영향을 준 것을 알 수 있다. 최초의 우리말 번역 날권 성서인 『예수성교누가복음전서』(1882년)에서는 λέπρα가 ‘빅납퐁’(눅 5:13)으로, λεπρός(λέπρα에 걸린 사람)는 ‘빅납퐁헌년자’(눅 4:27; 5:12; 7:22; 17:12)로 번역되었다. ‘빅납퐁’은 “‘보통 백반’을 한방에서 이르는 말”로, ‘백반(白斑)’은 “[의학] 피부의 한 부분에 멜라닌 색소가 없어져 흰색 반점이 생기는 병”이다.<sup>2)</sup> 이러한 번역은 최초의 우리말 신약성서인 1887년의 『예수성교전서』에서도 유지된다. ‘빅납퐁’이 사람의 피부색에 변화를 일으키는 병이기 때문에 λέπρα라는 원어의 한 측면을 담고 있기는

심으로 -”, 『성경원문연구』 40 (2017), 95-116 등이 있다. 또, 우리말 성서 번역에 있어서 성차별에 관해 다룬 논문은, 민영진, “우리말 성서 번역에 있어서 성차별 표현의 처리 - 『성경전서 표준새번역』을 중심으로 -”, 『성경원문연구』 15 (2004), 283-329; 이영미, “한글 성서 번역의 양성평등적 언어 활용에 관한 연구”, 『성경원문연구』 19 (2006), 47-68; 유연희, “시편을 보랏빛 렌즈로 읽기”, 『성경원문연구』 25 (2009), 30-52; 조지윤, “양성평등적 번역 선교: 예수와 사마리아 여인 대화(요 4:7-26)의 존대법 번역”, 『선교와 여성신학』 (서울: 프리칭아카데미, 2010), 232-261 등이 있다.

2)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백반”, [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View.do?word\\_no=140673&searchKeywordTo=3](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View.do?word_no=140673&searchKeywordTo=3) (2021. 7. 13.).

하였으나,<sup>3)</sup> 이 번역어는 이후의 역본들에서는 사라진다.

거의 같은 시기인 1885년에 이수정이 일본에서 번역한 『신약마가전복음서언해』에서는 λέπρα가 ‘문둥병’(막 1:42)과 ‘라병’(막 14:3)으로 번역되었다. 그리고 λεπρός는 마가복음 1:40에서는 ‘문둥病人’으로 번역되었다. 이것은 조선시대에 ‘한센병’이 존재했다는 것을 반증하며 이 어휘를 조선 사람들이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 준다.<sup>4)</sup> 이수정의 『신약마가전복음서언해』는 1885년에 미국인 선교사 언더우드(H. G. Underwood)와 아펜젤러(H. G. Appenzeller)가 조선으로 입국할 때 가져온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후 국내에서 성서번역자회를 조직하면서 새로운 번역을 추진할 때 영향을 미친 단편이다.

그러므로 1911년 최초의 우리말 완역 성경인 『성경전서』가 완성될 때, 이 성경에서 λέπρα는 ‘문둥병’(마 8:3; 막 1:42; 눅 5:12, 13)으로, λεπρός는 ‘문둥이’(마 8:2; 10:8; 11:5; 26:6; 막 14:3; 눅 4:27; 7:22)와 ‘문둥병 든자’(막 1:40; 눅 17:12)로 번역되었다. 이 성경은 1938년 『성경 개역』으로 개정되었는데 우리말 성경은 한말과 일제 강점기에 한국어를 지키는 보루였다. 그러나 λέπρα와 λεπρός에 해당하는 번역어는 개정되지 않았고, 1961년 『개역한글』에서 λέπρα는 ‘문둥병’으로, λεπρός는 ‘문둥이’와 ‘문둥병자’로 자리를 잡게 된다. 1911년의 『성경전서』부터 1938년의 『성경 개역』과 1961년의 『개역한글』까지 이 어휘가 유지된 것을 보면, 그 역사는 1998년에 『개역개정』이 발간될 때까지 90여 년을 이어 왔다고 볼 수 있다.

『개역한글』의 ‘문둥병’과 ‘문둥이’, ‘문둥병자’는 1998년 『개역개정』에서는 ‘나병’과 ‘나병환자’로 개정되었다. 『개역개정』의 번역을 준비할 당시에 이미 ‘문둥병’과 ‘문둥이’는 우리 사회에서 비하어로 규정되었고, ‘나병’이 새로운 용어로 사회적으로 통용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표준국어대사전』에 나오는 ‘나병(癩病)’에 관한 설명을 보면, “[의학] 나병균(癩病菌)에 의하여 감염되는 만성 전염병. 피부에 살점이 불거져 나오거나 반점 같은 것이 생기고 그 부분의 지각(知覺)이 마비되며 눈썹이 빠지고 손발이나 얼굴이 변형되며 눈이 잘 보이지 않게 된다.”라고 되어 있다.<sup>5)</sup> 실제로 ‘나병’

3) λέπρα에 상응하는 히브리어 נַחֲשָׁרָה를 두고 모세(출 4:6), 미리암(민 12:10), 게하시(왕하 5:27)의 경우에는 ‘눈과 같다’라는 표현이 나온다.

4) 『보건복지부 국립소록도병원』의 “문헌 속의 한센병” 소개에 의하면 적어도 1453년 조선 세종 때부터 한센병이 존재한 것으로 소개되어 있다(『세종실록』 참고), [http://www.sorokdo.go.kr/sorokdo/html/content.do?depth=hs&menu\\_cd=01\\_01\\_03\\_03](http://www.sorokdo.go.kr/sorokdo/html/content.do?depth=hs&menu_cd=01_01_03_03) (2021. 7. 13.).

5)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나병”, [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View.do?word\\_no=404491&searchKeywordTo=3](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View.do?word_no=404491&searchKeywordTo=3) (2021. 7. 13.). 『고려대한국어대사전』에서는 『표준국어대사전』보다 좀 더 자세하게 “[의학] 나균(癩菌)에 의해 감염되는 만성 전염성 난치병. 주로

과 ‘나병환자’라는 번역어는 1967년 『신약전서 새번역』에서 처음 등장한다. 이 성경부터 λέπρα가 ‘나병’(2회), λεπρός가 ‘나병환자’(9회)로 번역되었다.

그러나 1998년에 『개역개정』이 나오자마자 ‘나병’ 대신에 ‘한센병’으로 번역해 달라는 유관 기관의 요청이 있었다. 사회학적 의미로 ‘한센병’은 의료 기술의 발달과 경제적 힘의 강화로 치료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질병과 마찬가지로 사회적 차별이나 부정적인 편견 없이 원래의 사회로 돌아갈 수 있을 때 사용되기 때문이다.<sup>6)</sup>

이 요청은 성경 번역에 반영될 수 없었는데, 이미 『성경전서 표준새번역』(1993년)이 번역될 당시에 논의가 되었다. ‘한센’이란 19세기 의사의 이름을 따라 만든 질병의 이름을 기원전후에 걸쳐 기록된 고대 문헌에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고, 현대 의학이 규명한 ‘한센병’과 구약의 히브리어 קַרְסָן과 신약의 그리스어 λέπρα가 현재의 ‘한센병’과 같은 질병이 아닐 수도 있다는 논란이 있어서였다.

이 어휘는 1993년에 발간된 『표준』 구약 본문에서 ‘악성 피부병’으로 번역되면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한다. 『표준』의 구체적인 문맥에 맞추어 레위기 13-14장의 본문에서는 ‘악성 피부병’ 혹은 ‘악성 곰팡이’로 번역하면서 새로운 번역의 가능성을 열었다. 그 밖의 구약 본문에서는 ‘나병’으로 번역하면서(15회) 각주에 “히브리어 ‘차라앗’이나 ‘메초라’는 각종 악성 피부 질환을 가리키는 말로서, 반드시 ‘나병’만을 뜻하는 말은 아님”이라고 표기하였다(10회, 왕하 5:1, 3, 6, 7, 11, 27; 7:3, 8; 15:5; 대하 26:19). 『표준』 신약에서도 ‘나병’으로 번역하면서 각주에 “나병을 포함한 여러 가지 악성 피부병을 말함”이라고 하였다. 이 번역은 『표준』의 개정판인 『성경전서 새번역』(2001년)에서도 계속 유지된다.

---

말초 신경과 피부에 병원균이 침투하여, 피부에 결절(結節)과 반문(班文)이 생기고 그 부분에 지각 마비가 일어난다. 또한 눈썹이 빠지고, 수족과 안면이 변형되며, 시력 장애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난치병의 하나이다. 1879년 나균을 노르웨이의 의학자 한센(G. H. A. Hansen, 1841~1912)이 발견하였다.”라고 하고 있다. <https://ko.dict.naver.com/#/entry/koko/5576f6c8ddd94ed89cf3b9b36cb8022d> (2021. 7. 13.).

6) 또한 ‘한센병’은 “현재는 전 세계적으로 24개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 연간 1만 명당 1건 미만으로 발생하는 드문 질환”이다. 특히 WHO (World Health Organization)는 우리나라가 한센병 퇴치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보는데, 한국한센총연합회에 의하면 국내 한센인은 2019년 현재 총 9,288명 정도라고 한다. WHO의 “Leprosy (Hansen’s disease)”에 대한 설명을 보면, ‘한센병은 Mycobacterium leprae로 인한 만성 전염병이다. … 그러나 나병은 치료가 가능하며 초기 단계의 치료로 장애를 예방할 수 있다’. 그러나 한센병은 1940년대에 처음으로 답손(dapsone) 치료제가 개발되고, 2000년에 전 세계적으로 공중 보건 문제로서의 한센병이 사라지게 되었다(1만 명당 1명 미만으로 등록되는 유병률로 정의됨). WHO의 “Leprosy”에 관한 “Brief history of the disease and treatment”(2019년 9월 10일자 보고).

### 3. 구약성서 $\text{לֵפְרָא}$ 와 한센병과의 관계

신약성서의  $\lambda\epsilon\pi\rho\alpha$ 는 히브리어 구약성서  $\text{לֵפְרָא}$ 의 칠십인역 상응어인  $\lambda\epsilon\pi\rho\alpha$ 에서 온 것이다.  $\text{לֵפְרָא}$ 을 다루는 데 있어서 중요한 본문이 레위기 13-14장이다. 레위기가 쓰여졌을 당시에 한센병이 존재했는지에 관해서는 성서고고학이 도움을 준다.

한센병은 기원전 600년경 인도와 중국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팔레스타인에는 아마도 기원전 326년에 알렉산더 대왕과 함께 아시아를 정복한 군인들에 의해 퍼졌으며, 팔레스타인뿐 아니라 유럽 전역의 군사, 종교 및 상업 경로를 따라 퍼졌을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sup>7)</sup> 따라서 시기적으로 보았을 때 레위기 13-14장의  $\text{לֵפְרָא}$ 은 한센병일 가능성이 거의 없다.

또, 한센병이 뼈에 끼치는 영향에 대한 학문적 지식이 점차 늘어나면서, 덴마크 고고학자인 뮐러-크리스텐센(Möller-Christensen)이 이집트에서 기원전 6000~기원후 600년에 걸쳐 나온 1,844개의 유골을 검사했는데 단 2개에만 한센병이 있었다고 하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다. 그리고 남부 팔레스타인에 있는 라기스(기원전 760~600년)에서 695개의 유골을 조사했는데 그중에서는 한센병으로 뼈가 변화된 흔적을 조금도 찾지 못했다고 한다.<sup>8)</sup> 이렇게 볼 때 성서시대의 팔레스타인에는 한센병이 존재했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구약성서의  $\text{לֵפְרָא}$  또한 ‘한센병’과는 달리 매우 광범위한 증상을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쉬나는  $\text{לֵפְרָא}$ 의 증상을 서로 다른 랍비들이 16가지, 36가지, 혹은 72가지로 확인했다고 언급한다(*m. Neg.* 1.4).<sup>9)</sup>  $\text{לֵפְרָא}$ 은 역겹고 불결한 피부병으로, “여드름, 물집, 부스럼, 종기, 딱지, 비듬, 피부염과 같은 피부에 발생하는 수많은 번식 증상을 포괄한다.”<sup>10)</sup> 이러한 피부병은 피부염들로 인해 고름이 나오고, 피가 나고, 악취가 나기 때문에 사람을 부정하게 만든다.<sup>11)</sup>

7) J. E. 하틀리, 『레위기』, WBC 성경주석, 김경열 역 (서울: 솔로몬, 2005), 425; A. E. Paton, “An Examination of the Evidence for the Existence of Leprosy and Hansen’s Disease in Medieval Ireland”, Ph.D. diss. (University of Glasgow, 2014), 45.

8) V. Möller-Christensen, *The History of Syphilis and Leprosy: An Osteo-archaeological Approach*, Abbotemp 1 (1969); M. L. Davies, “Levitical Leprosy”, 137; S. G. Browne, “Leprosy in the Bible”, Bernard Palmer, ed., *Medicine and the Bible* (Carlisle: Paternoster Press, 1986), 112 재인용.

9) J. E. 하틀리, 『레위기』, 428.

10) Ibid.

11) Ibid.

특히 레위기 13장-14장을 두고 성서 주석가들은 **תַּרְעָמָה**이 지금의 한센병보다는 훨씬 광범위한 피부병이라는 데 동의한다.<sup>12)</sup> (1) ‘한센병’은 레위기 13-14장에 나오는 것처럼 의복이나 가죽, 집 등에는 생길 수 없기 때문이다. (2) 또 레위기에 기술된 질병은 갑자기 생겨나는 질병으로 때때로 자연적으로 낫기도 하는데, 한센병은 현대의 투약 요법 없이는 치료하기 어려운 병이다.<sup>13)</sup> (3) 한센병은 수년에 걸쳐 진전되는 병으로, 제사장이 7일 안에 외모의 변화를 알아채기에는 너무 짧다.<sup>14)</sup> (4) 그 증상에 있어서 한센병은, 일반 사람들이 봐도 알 수 있는 “눈썹이 빠지고 손발이나 얼굴이 변형되며 눈이 잘 보이지 않게 되는” 등의 증상이 있는데 레위기의 묘사는 그렇지 않다.

그러므로 1960년대 이전에 이미 수년간 많은 의료 전문가들은 **תַּרְעָמָה**과 **λέπρα**를 ‘나병’이나 그에 상응하는 어휘로 번역하는 데 문제를 삼아 왔다. 세계성서공회연합회(United Bible Societies)가 발간하고 있는 성서 번역학 학술지인 *The Bible Translator*<sup>15)</sup>에서는 1960년부터 본격적으로 이 문제를 다루었다.<sup>16)</sup> 특히 20년 넘게 한센인들을 치료해 온 네덜란드 의료 선교사 그램버그(K. P. C. A. Gramberg)는, 레위기 13:1-44의 **תַּרְעָמָה** 증상이 오늘날의 한센병과 전혀 다르다는 점을 병리학적으로 세밀하게 논하였다.<sup>17)</sup> 그리고 인도네시아 자바의 이슬람교에서는 본래 나병에 대한 공포가 없었지만 기

12) 레위기 13-14장에 나오는 **תַּרְעָמָה**에 관한 국내 연구로는 정중호, 『레위기 만남과 나눔의 장』(서울: 한들출판사, 1999);王大일, “구원과 치유-성서적, 신학적 이해 부정함에서 거룩함까지, 레위기 13-14장의 경우”, 『신학과 세계』 54 (2005), 90-111; 홍성혁, “구약성서의 질병이해: 질병의 원인”, 『구약논단』 20 (2006), 124-146; 유윤중, “**תַּרְעָמָה**, **λέπρα**, **λεπρός**의 올바른 이해와 번역”, 『성경원문연구』 36 (2015), 206-230 등이 있다.

13) J. 마커스, 『앵커바이블 마가복음 I』, 류호영, 장성민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16), 326.

14) S. J. Browne, “Leprosy in the Bible”, 107. 한국한센복지협회의 설명에 의하면, “나균의 증식 속도가 매우 느려서 병의 잠복기가 매우 길다고(5~20년) 알려져 있고 나균의 감염력은 매우 낮다고 알려져 있다”고 한다, [http://www.khwa.or.kr/sub.asp?maincode=484&sub\\_sequence=533&sub\\_sub\\_sequence=](http://www.khwa.or.kr/sub.asp?maincode=484&sub_sequence=533&sub_sub_sequence=), (2021. 4. 15.).

15) 세계성서공회연합회(United Bible Societies)는 1946년에 창설된 이래 지금까지 150여국의 150여 개 성서공회들이 연합하여 성경의 번역과 출판과 보급을 서로 협력하여 하고 있는 기구이다. 1950년부터 *The Bible Translator*를 발간해서 전 세계 언어의 성서 실제와 이론에 관한 논문들을 실어 왔다.

16) K. P. C. A. Gramberg, “‘Leprosy’ and the Bible”, *The Bible Translator* 11 (1960), 10-23; J. L. Swellengrebel, “‘Leprosy’ and the Bible: The Translation of ‘Tsara’ath and Lepra’”, *The Bible Translator* 11 (1960), 69-79; D. H. Wallington, “‘Leprosy’ and the Bible”, *The Bible Translator* 12 (1961), 75-79; R. G. Cochrane, “Biblical Leprosy”, *The Bible Translator* 12 (1961), 202-203; S. G. Browne, “‘Leprosy’ in the New English Bible”, *The Bible Translator* 22 (1971), 45-46; J. G. Andersen, “Leprosy in Translations of the Bible”, *The Bible Translator* 31 (1980), 207-212.

17) K. P. C. A. Gramberg, “‘Leprosy’ and the Bible”, 10-23.

독교의 영향으로 그에 대한 공포가 퍼졌으며 레위기 13:45-46이 그러한 태도에 이유를 제시한다고 하였다.<sup>18)</sup> 또 당시에 한센병 분야에서 가장 저명한 의료 전문가인 코크런(Cochrane)도 “성경에서 ‘leprosy’(나병)로 묘사된 상태가 한센병의 초기 병변이나 증상과 관련이 있다는 증거가 전혀 없다”고 확신하였다.<sup>19)</sup>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진영에는 한센병이 없었고, 유대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 들어왔다는 것이다. 언어학자인 스블랑그레벨(J. L. Swellengrebel)도 성서적 증거를 검토한 결과 이 용어가 오늘날의 한센병이라기보다는 심각한 성격을 띠고 제의적 부정(uncleanness)을 수반하는 어떤 종류의 질병을 나타내고 있다는 중요한 관점을 정리하였다.<sup>20)</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서구의 전통적인 성경 번역들이 **צַרְעַת**을 ‘나병’(leprosy)으로 번역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는 레위기 외에 **צַרְעַת**이 나오는 구약성서 본문들을 보면 추측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크게 분노하셨을 때 **צַרְעַת**으로 사람을 치시는 경우가 있는데 (1) 미리암(민 12:1-15)과 (2) 요압의 집안에 생길 그 질병의 환자(삼하 3:28-29)와 (3) 게하시(왕하 5:26-27)와 (4) 웃시야/아사랴 왕(대하 26:16-23; 왕하 15:1-5)<sup>21)</sup>이 이에 해당한다. 이런 본문들 때문에 구약성서에서 **צַרְעַת**은 하나님의 저주 내지는 형벌이라는 강한 인식이 생기게 되었고, 그 질병에 걸린 사람들에 대한 편견이 생기게 되었다.<sup>22)</sup> 그와 함께 인류 역사상 피부에 일어나는 질병 중 가장 치명률이 높고 전염성이 있다고 여겨지는 나병에 대한 두려움이 함께 맞물리면서 성경의 번역어로 계속 유지되었고, 나병에 대한 편견과 차별은 더욱더 강화되었다.

#### 4. λέπρα가 영어 ‘leprosy’(나병)가 된 역사

그리스어 칠십인역의 λέπρα는 히브리어 구약성서의 **צַרְעַת**과 마찬가지로, 그리스어에서 다양한 종류의 피부의 상태를 가리키는 총칭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었고, 지금의 한센병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었다.<sup>23)</sup> 기원 전후에 그리스 저자들인 아우렐리우스 코넬리우스 켈수스(A. C. Celsus)와

18) Ibid.

19) R. G. Cochrane, “Biblical Leprosy”, 202-203.

20) J. L. Swellengrebel, “‘Leprosy’ and the Bible: the Translation of ‘Tsara’ath’ and Lepra”, 74.

21) 왕하 15:1-5의 아사랴는 웃시야라고도 불린다(왕하 15:13, 30 등; 사 1:1; 6:1; 7:1). **צַרְעַת** 때 문에 아사랴는 격리당한다(참조, 레 13:46).

22) J. E. 하틀리, 『레위기』, 443.

23) J. Milgrom, *Leviticus*, Anchor Bible 3 (New York: Doubleday, 1991), 816.

플리니우스(G. P. Secundus)는 지금의 ‘한센병’을 가리켜 ‘엘레판티아시스(ἑλεφαντίασις, 소위 “상피병”)’라고 하였다.<sup>24)</sup> 이 병은 환자의 피부가 깊은 곳에까지 거칠어져 코끼리 피부처럼 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sup>25)</sup> 알렉산드리아의 비잔틴 의사인 오리바시우스(Oribasius, 기원후 326-403년)는 ‘엘레판티아시스’를 오늘날의 ‘한센병’ 증상과 동일하게 설명하였다.<sup>26)</sup> 그는 에베소의 루푸스(Rufus of Ephesus, 기원후 98-117년)의 글을 인용하는데, 루푸스는 거의 알려지지 않은 알렉산드리아의 다른 의사인 스트라톤(Straton)의 글을 인용하였다.<sup>27)</sup> 스트라톤은 알렉산드리아의 의사였던 에라시스트라투스(Erasistratus, 기원전 300-250년경)의 제자로, 오늘날의 ‘저-저항성 나병(low-resistant leprosy)’ 증상을 명확하게 묘사하면서 ‘새로운 질병’으로 소개하였다.<sup>28)</sup> 이렇게 볼 때 헬레니즘 시대와 고대 로마 시대의 의사들은 지금의 한센병에 해당하는 ‘엘레판티아시스’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λέπρα와는 혼동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왜 그리스어 λέπρα가 지금의 영어 ‘leprosy’(나병)로 번역된 것일까? 한센병 의료 전문가인 안데르센(J. G. Andersen)은 9세기 아랍어 번역 때문일 것으로 본다.<sup>29)</sup> 비잔틴 제국 붕괴 후 아랍 의사 크리소르하스(Y. Crysorrhas, 기원후 777-857년)는 그리스어 ‘엘레판티아시스’를 아랍어 ‘주잠(juzam)’으로 번역하였다.<sup>30)</sup> ‘주잠’은 코란에 나오는 용어로 히브리어 ‘차라앗(צָרָאֵת)’과 유사한 개념이다. 그런데 크리소르하스는 이 ‘주잠’을 ‘엘레판티아시스’와 연결시킨 것이다.<sup>31)</sup> 르네상스 시대에는 아랍어 번역에서 재발견된 그리스어와 라틴어 텍스트를 다시 라틴어로 역번역하는 작업이 이루어졌는데, 이때부터 용어의 혼란이 시작되었다.<sup>32)</sup> 오늘날의 한센병을 가리켜 어떤 사람들은 라틴어 ‘lepra’라고 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라틴어 ‘ēlēphantīāsis’라고 했다.<sup>33)</sup> 헐스(E. V. Hulse)도 중세 시대에 일부 아랍어 저

24) J. E. 하틀리, 『레위기』, 423-424.

25) J. Wilkinson, “Leprosy and Leviticus: A Problem of Semantics and Translations”, 159; 유윤중, “צָרָאֵת, λέπρα, λεπρός의 올바른 이해와 번역,” 217-218 재인용.

26) J. G. Andersen, “Leprosy in Translations of the Bible”, 207.

27) Michael Walters Dols, “Leprosy in Medieval Arabic Medicine,” *Journal of History of Medicine*, 34 (1979), 314-333, 330; Paton, *An Examination of the Evidence for the Existence of Leprosy and Hansen’s Disease in Medieval Ireland*, 45 재인용.

28) S. G. Browne, “Leprosy in the Bible”, 112.

29) J. G. Andersen, “Leprosy in Translations of the Bible”, 208. 이러한 주장은 많은 구약성서 주석가들과 한센병 연구자들이 동의하는 것 같다.

30) J. G. Andersen, “Leprosy in Translations of the Bible”, 208.

31) Ibid.

32) Ibid.

33) Ibid.



자들이 라틴어 ‘lepra’라는 용어를 한센병에 사용하기 시작했으며, 불행히도 그 뒤에 유럽 저술가들이 그들을 뒤따랐다고 본다.<sup>34)</sup>

성경 번역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라틴어 성경 번역자들과 기원후 5세기의 제롬(342~420년)이 칠십인역 구약성서와 그리스어 신약성서의 λέπρα를 따라 라틴어 ‘lepra’로 번역을 하였다. 그리고 영어 번역자들도 동일한 관행을 따라 그것을 ‘leprosy’로 번역하였고, 전통적인 영어 역본인 KJV (1611년)와 RSV (1952년), 그 개정판인 NRSV (1989년), 최근의 ESV (2001년)까지도 λέπρα를 ‘leprosy’로 번역하였다.

그런데 19세기에 이르러 오히려 라틴어 ‘lepra’에서 온 영어 ‘leprosy’가 나병에 국한되어 사용되었고, ‘elephantiasis’를 ‘나병’을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하지 않게 되었다.<sup>35)</sup> 그러나 이미 히브리어 תַּעֲרָב과 그리스어 λέπρα를 영어 ‘leprosy’로 번역하는 것이 관행이 되어 있었다.

## 5. ‘예수께서 λεπρός를 깨끗하게 하시다’(막 1:40-44; 마 8:1-4; 눅 5:12-14)를 중심으로

그리스어 신약성서에서는 λέπρα와 λεπρός가 13회 나온다(마 10:8; 11:5//눅 7:22; 막 1:40-44//마 8:1-4//눅 5:12-14; 막 14:3//마 26:6; 눅 4:23-24, 27; 눅 17:12-19). 이 본문들을 해석하는 신약성서 학자들 중에는 λέπρα를 ‘나병’으로 보는 경우도 있으나,<sup>36)</sup> 최근의 연구 결과들은 다른 것 같다.

### 5.1. 신약성서 λέπρα의 사전적 의미

전통적으로 많이 사용되었던 그리스어 사전인 바우어(W. Bauer)의 『신약성서와 초기 기독교 문헌들의 그리스어-독일어 사전』(*Griechisch-deutsches Wörterbuch zu den Schriften des Neuen Testaments und der frühchristlichen*

34) E. V. Hulse, “The Nature of Biblical ‘Leprosy’ and the Use of Alternative Medical Terms in Modern Translations”, *PEQ* 107 (1975), 87-105.

35) 1905년 베를린에서 열린 국제 나병 회의(International Leprosy Congress)에서 선언을 하였다. J. G. Andersen, “Leprosy in Translations of the Bible”, 208.

36) K. Lake, “ἐμβριμησάμενος and ὀργισθεῖς, Mark 1, 40-43”, *HTR* 16 (1923), 197-198; C. H. Cave, “The Leper: Mark 1.40-45”, *NTS* 25 (1978-79), 245-250 등. 에드워드(J. R. Edwards)는 ‘나병은 팔레스타인에 널리 퍼져 있던 질병이었고, 나병에 관한 상태는 레위기 13-14장에 매뉴얼처럼 논의된다’라고 언급한다(J. R. Edwards, *The Gospel according to Mark* [Grand Rapids: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2002], 68).

Literatur)<sup>37)</sup>은, λέπρα에 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λέπρα, ας, ἡ

나병. 피부와 내부 기관에 결절과 혹 모양을 형성하는 결절성 나병과 지체를 썩어 떨어지게 하는 신경성 나병으로 구별된다. 마 8:3; 막 1:42; 눅 5:12 등.<sup>38)</sup>

이러한 전통적인 정의가, 이 사전을 2000년에 당커(F. W. Danker)가 수정, 보완하고 영어로 번역하면서 아래와 같이 바뀐다.<sup>39)</sup>

λέπρα, ας, ἡ

심각한 피부병(serious skin disease), 나병 포함. 그리스어. 의료 전문가들은 λέπρα라는 용어가 다양한 피부질환을 포함한다고 본다. 성경의 נַפְתָּר (참고, 레 13장)과 λέπρα가 현대에 ‘한센균’으로 알려져 있는 ‘나병’이 아니라는 많은 증거가 있다.<sup>40)</sup> 실제로 한센병이 성서시대에 알려지지 않았거나, 나병과 다른 이름으로 알려졌다고 주장하는 많은 사람들(참조, 그램버그[Gramberg]와 코크런[Cochrane])이 있다.<sup>41)</sup> 칠십인역과 신약 성서의 λέπρα는 나병이라고 부르는 것을 지칭할 때도 있지만, 건선(psoriasis), 루푸스(lupus), 백선(ringworm) 및 황선(favus)과 같은 피부 질환으로 확장되어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명확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보다 일반적인 용어인 심각한 피부병(serious skin disease, 마

37) W. 바우어, 『바우어 헬라어 사전: 신약성경과 초기 기독교 문헌의 헬라어-한국어 사전』, 이정의 역 (서울: 생명의말씀사, 2017), 898 참조; W. Bauer, *Griechisch-deutsches Wörterbuch zu den Schriften des Neuen Testaments und der frühchristlichen Literatur*, Kurt Aland and Barbara Aland, ed. (Berlin; New York: de Gruyter, 1988).

38) 『바우어 헬라어 사전: 신약성경과 초기 기독교 문헌의 헬라어-한국어 사전』에서는 λεπρός를 다음과 같이 번역한다. “λεπρός, οῦ: 나병의, 나병에 걸린, 레프로이 안드레스(눅 17:12). 나병환자, 문둥병자(마 8:2; 10:8; 11:5; 막 1:40; 눅 4:27; 7:22[마 11:5과 눅 7:22]). 베다니 시몬의 성(surname)(마 26:6; 막 14:3).”

39) W. Bauer, *A Greek-English Lexicon of the New Testament and Other Early Christian Literature*, Frederick William Danker, rev. and 3d ed. (Chicago; London: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0), 592.

40) 영어 <바우어 사전>에서 언급하고 있는 구약성서의 נַפְתָּר이라는 용어에 대한 사전적 정의 또한 포괄적으로 ‘피부병’이라고 명시한다. “נַפְתָּר - 피부병. 사람의 살갓에 나타나는 피부병(레 13:2, 8, 11-13, 15, 20, 25, 27, 30, 42; 14:3, 7, 32, 54, 57; 신 24:8; 왕하 5:3, 6, 7, 27; 대하 26:19), 건물의 벽(아마 질산화한 자리) 혹은 의복(곰팡이 혹은 탈색)에 나타나는 변색된 점(레 13:47, 51, 59; 14:34, 44, 55)”(빌헬름 게제니우스, 『구약성서 히브리어, 아람어 사전』, 이정의 역 [서울: 생명의말씀사, 2007], 696).

41) W. Bauer, *A Greek-English Lexicon of the New Testament and Other Early Christian Literature*, 592. <바우어 사전>은 위와 같은 설명을 뒷받침하는 참고문헌으로 BT에 연재된 소논문들을 나열하는데, BT는 최근에는 TBT(*The Bible Translator*)라고 불린다.

8:3; 막 1:42; 눅 5:12이하)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다.<sup>42)</sup>

이같이 그 사전적 의미 규정이, λέπρα에 대한 최신 학문 연구 결과로 인해 변화된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λέπρα의 의미는 ‘나병’에서 ‘심각한 피부병’이라는 광범위한 의미로 확대되었다. 이러한 영어 바우어 사전의 설명과 유사하지만, λέπρα의 다른 측면을 소개하고 있는 나이다(J. P. Louw and E. A. Nida) 사전도 있다.<sup>43)</sup> 이 사전에서는 λέπρα의 ‘전염성’에 초점을 맞추며 ‘제의적 부정’(uncleanness)을 강조한다.

λέπρα, ας f

현재 나병(leprosy)으로 간주되는 것을 포함하는, 두려운(dreaded) 피부 상태일 뿐 아니라 전염성 피부 질환의 특정 유형으로, 그 결과 어떤 사람이 제의적으로 부정(不淨)한 것으로 간주되어 다른 사람들과의 정상적인 관계에서 배제된다. - ‘나병, 두려운 피부병’. (a\*) ἀνὴρ πλήρης λέπρας ... ἐδεήθη αὐτοῦ ... καθαρίσαι ‘두려운 피부병에 걸린 남자가 ... 그(예수)에게 ... 그(자신)를 고쳐 달라고 요청했다.’(눅 5:12). 신약성서에서 언급되는 λέπρα의 유형에 관하여 상당한 의견 차이가 있다. 어떤 권위 있는 학자들은 이러한 유형의 질병이 소위 한센병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다른 학자들은 한센병뿐만 아니라 건선(psoriasis), 지루(seborrhea), 핀토(pinto)(흰색, 피부의 얼룩진 변색) 다른 여러 피부 질환을 포함하고 있다고 본다. 성서 본문의 관점에서 볼 때, 제의적 부정(uncleanness)이나 불결(impurity)이 육체적 질병보다 중요했다.<sup>44)</sup>

이런 대표적인 그리스어 사전들의 설명으로 미루어 볼 때, 신약성서의

42) 영어 <바우어 사전>에서는 독일어 사전과는 달리 λέπρα에 걸린 환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λεπρός, οὔ: 피부병이 심한, 심각한 피부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비늘’이 되는, 식물에서 비슷한 상태가 됨; 칠십인역), 레프로이 안드레스(눅 17:12). 심각한 피부 질환을 가진 사람(마 8:2; 10:8; 11:5; 막 1:40; 눅 4:27; 7:22[마 11:5과 눅 7:22]). 베다니 시몬의 성(surname)(마 26:6; 막 14:3).’

43) J. P. Louw and E. A. Nida, eds., *Greek-English Lexicon of the New Testament Based on Semantic Domains* (New York: United Bible Societies, 1988). 이 사전은 현재 신약성서의 번역을 위하여 무엇보다 의미 영역이 강조된 유일한 사전이기도 하지만 의미의 범위(domain)의 분류와 자료들을 나열한 체계성 또한 무척 뛰어나다고 할 수 있다. 즉 기존 사전들과는 달리 이 사전에는 단어들이 알파벳순으로 나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1번에서 93번까지의 의미 영역에 맞추어 의미가 비슷한 단어를 한 단위로 묶어 취급하고 있다.

44) 로우(J. P. Louw)와 나이다(E. A. Nida)가 편집한 사전에서는 λεπρός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λεπρός, ου (λέπρα ‘두려운 피부병’[dread skin disease]의 파생어, 23, 161) 두려운 피부병을 앓고 있는 사람 - ‘두려운 피부병을 앓고 있는 나병환자’. ‘병을 고치십시오 ... 두려운 피부병을 가진 사람들을 치료하십시오’(마 10:8).’

λέπρα는 ‘나병’보다 폭넓은 의미로 사용된 것을 알 수 있다.

최근의 신약성서 학자들 중에도 λέπρα를 ‘한센병’을 포함한 다양한 피부병으로 보기도 하고,<sup>45)</sup> תַּעֲרָבָּ에 대해 연구를 했던 한센병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한센병’과 무관한 여러 피부병의 총칭어로 보기도 한다.<sup>46)</sup> 실제로 공관복음 해당 본문에는 λέπρα에 관한 구체적인 증상이 언급되어 있지 않다. 그러므로 어떤 질병인지 확실히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어휘가 사용된 사회적 문화적 맥락을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

## 5.2. ‘예수께서 λεπρός를 깨끗하게 하시다’(막 1:40-44; 마 8:1-4; 눅 5:12-14)의 중심 메시지

이 본문에 대한 대부분의 주석들은 λέπρα에 걸린 사람의 고통을 사회적 문화적으로 설명하고 이를 예수께서 기적으로 치유하셨다는 데 그 초점을 맞춘다.<sup>47)</sup> 특히 예수의 다른 치유 사역에서 나오는 동사들과는 달리 ‘깨끗하게 하다(καθαρίζω)’가 반복된다는 점에 주목한다. λέπρα와 호응되는 동사인 καθαρίζω는 λέπρα가 나오는 본문들에서 10회 나온다(마 8:2, 3; 10:8; 11:5; 막 1:40, 42; 눅 4:27; 5:12, 5:13; 7:22).<sup>48)</sup>

위의 본문들 중 공관복음에 모두 나오는 ‘예수께서 λεπρός를 깨끗하게 하

45) 굴리히(R. A. Guelich)는 신약성서에서 λέπρα라고 부르는 질병은 ‘나병과 함께 다양한 다른 피부질환을 포함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R. A. Guelich, *Mark 1-8:26*, WBC, Vol. 34A [Dallas: Word Books, 1989], 73).

46) 레인(W. L. Lane)은 레위기 13-14장의 성서적 자료를 조사한 한센병 전문가들을 언급하면서, λέπρα는 ‘광범위하게 다양한 만성 피부병’(a wide variety of chronic skin disease)을 지칭하는 집합 명사라고 확신한다(W. L. Lane, *The Gospel according to Mark* [Grand Rapids: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 1974], 85). 만(C. S. Mann)도 λέπρα는 ‘많은 피부 질환(건선, 백반증, 상피병)을 포함하며 한센병이 여기에서 의도된 것이라고 결론내릴 수 없다’고 주장한다(C. S. Mann, *Mark: A New Translation with Introduction and Commentary*, Anchor Bible 27 [New York; London; Toronto; Sydney: Doubleday, 1986], 219). 위더링턴 3세(B. Witherington III)는 λεπρός를 ‘두려운 피부병을 앓고 있는 사람’(a man with a dreaded skin disease)이라고 묘사하며, ‘나병’은 예수 시대와 지역에 존재하지 않았다고 한다(B. Witherington III, *The Gospel of Mark* [Grand Rapids: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2001], 102).

47) 특히 눅 17:12에서는 한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의 지시대로 순종함으로써 λέπρα가 ‘났다’(ιάομαι, 눅 17:15)라는 동사와 함께 사용된다(이 동사는 민 12:13의 히브리어 ‘라파’[רָפָא]에 대한 대응어로 칠십인역에서 사용된 것과 동일하다). 사마리아인 λεπρός가 모세의 율법의 영역 밖에 있었기 때문에 그 치유가 제의적 정결과 연결되는 쟁점이 아니었다(눅 17:12-19).

48) 눅 17:15을 제외하고는 λέπρα와 연결되는 동사는 ‘깨끗하다’이다. 물론 ‘λέπρα가 그를 떠났다’라는 표현이 두 번 나오기도 한다. J. L. Swellengrebel, “‘Leprosy’ and the Bible: the Translation of ‘Tsara’ath’ and Lepra”, 74.

시다’(막 1:40-44; 마 8:1-4; 눅 5:12-14)를 보면 그 구성과 표현이 아래와 같다.<sup>49)</sup>

- (1) 깨끗하게 해 달라는 λεπρός의 요청(막 1:40; 마 8:1; 눅 5:12)
- (2) λεπρός가 깨끗함을 받게 하는 예수의 동작과 말(막 1:41; 마 8:3상; 눅 5:13상)
- (3) λεπρός가 깨끗해짐(막 1:42; 마 8:3하; 눅 5:13하)
- (4) 예수께서 λεπρός에게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고 깨끗하게 됨을 입증 하라고 하심(막 1:43-45; 마 8:4; 눅 5:14-16)

위의 본문에서 καθαρίζω는 λεπρός의 요청인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 이다”(막 1:40; 마 8:2; 눅 5:12), 예수의 말씀인 “깨끗함을 받으라”(막 1:41; 마 8:3, 눅 5:13), 그 말씀의 결과로 “깨끗하여진지라”(막 1:42; 마 8:3하; 참고, 눅 5:13하 “떠나니라”), 또 다시 예수의 명령 중 “네가 깨끗하게 되었으니”(막 1:44; 눅 5:14)에서 나온다. 칠십인역에서 이 동사는 제의적 정화의 의미를 담아 ‘깨끗하게 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본문에서 ‘깨끗하게 하다’가 이토록 강조된 것은, λεπρός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깨끗하지 않았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구약시대에 λέπρα에 걸렸다고 판명된 자는 다른 사람들과의 일상적인 접촉으로부터 격리되어 종종 진영 바깥에서 살아야 했다(레 10:4-5; 민 5:2-3; 12:10-12; 신 24:8; 왕하 5:27; 7:3-9).<sup>50)</sup> 가족과 공동체로부터 축출되어 그 사람이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린 채 “부정하다 부정하다”라고 소리치고 있는 모습은 다른 사람들이 그에게로 접근하는 것을 막으려는 외침이고, 더 나아가서는 죽은 자를 애도하는 몸짓이었다(비교, 창 37:34; 삼하 1:11).<sup>51)</sup> 신약 시대에도 역시 λέπρα에 걸린 사람은 제의적으로 부정하다고 여겨졌고(참조, 레 13-14장), 일상 생활에서 사회적으로 배척당하였다(참조. *m. Nega'im*).<sup>52)</sup>

신약 시대의 유대교 사회는 정결 체계 하에 있었고, 정결과 부정, 깨끗함과 더러움을 구별하는 정결법이 사회 체계의 근간을 이루었다.<sup>53)</sup> 그러므로

49) 대부분의 신약학자들은 이 예수의 치유 사역이 나오는 마 8:1-4과 눅 5:12-16이 막 1:40-45에서 전수된 것으로 본다. 본 논문에서 번역 본문은 가능한 한 『개역개정』(1998년)을 사용할 것이다.

50) 조셉 A. 피츠마이어, 『앵커바이블 누가복음 I』, 이두희, 황의무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15), 908.

51) R. Meyer, “Cultic Uncleaness”, *TWNT III* (Eng. Tr. 1965), 418-421; W. L. Lane, *The Gospel according to Mark*, 85 note 144 재인용.

52) R. A. Guelich, *Mark 1-8:26*, 73.

53) M. J. Borg, *Meeting Jesus Again for the First Time* (New York: Harper San Francisco, 1994), 46-48.

λέπρα에 걸린 사람의 요청은 이미 그 기본 체계를 흔드는 것이었다. 예수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제의적 오염(contamination), 즉 부정적 금기(negative taboo)를 제거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다.<sup>54)</sup>

그(λεπρός 막 1:40; 마 8:1; ‘온몸에 λέπρα가 들린 사람’, 눅 5:12)<sup>55)</sup>의 절박함이 본문 첫 절에서 반복적인 표현을 통해 강조된다. 예수께 “와서 꿰어 엮드려 간구하여”(막 1:40), “나아와 절하며 이르되”(마 8:2), “보고 엮드려 구하여”(눅 5:12),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막 1:40; 마 8:2; 눅 5:12)라고 간청한다. 그가 “저를 낫게 하실 수 있나이다”가 아니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라고 한 것은, 단순히 질병 자체의 치유보다는 그가 처한 사회적 죽음, 즉 제의적 오염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이다.

이때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을 하실 수 있는 예수의 능력을 나타내는 동사, “... 하실 수 있나이다(뒤나사이)”가 사용된다(막 3:27; 5:3; 8:4, 22-23, 28-29).<sup>56)</sup> 이것은 예수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에서 파생된다는 것을 드러낸다(막 9:3과 10:26).<sup>57)</sup> 실제로 구약성서에서 טָהַר 치료는 하나님 현존의 표시로 간주되었다(출 4:1-7; 민 12:10-15; 왕하 5:8, 15).

예수께서는 한 마디 말씀으로 λεπρός를 낫게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막 1:41; 마 8:3; 눅 2:13) 말씀하신다. 1세기 유대교 사회에서 이 병에 걸린 사람들은 사실상 시체같이 여겨졌다. 이들과의 신체적 접촉은 사체를 만진 것과 같은 동일한 유형의 오염을 불러일으키는 것으로 보았다(민 12:12; 욥 18:13; 11QTemple 45:17-18; b. Nid. 64b).<sup>58)</sup> 그러나 예수는 정결과 부정, 깨끗함과 더러움을 구별하는 그 경계 자체를 무너뜨리시고 λεπρός의 부정한 상태를 압도하신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막 1:42; 마 8:3; 눅 5:13). 이 말씀으로 예수의 ‘거룩함’(막 1:24의 “하나님의 거룩한 자” 참조)이 λεπρός에게 옮겨가서 치유된다.<sup>59)</sup> 레위기의 규례들은 λεπρός를 부정하다고 진단하고 가족

54) καθαρίζω의 b purify 53.28에 대한 <로우와 나이다 사전> 설명을 참고할 수 있다.  
 55) 눅 5:12의 ‘온몸에 λέπρα가 들린 사람’이라는 표현은 단순히 λέπρα에 걸렸다는 것보다는 더 강한 의미이다. 그래서 필리핀 타갈로그어로는 ‘온통 λέπρα를 앓는 사람’으로, 바하사 인도네시아어로는 ‘심하게 나병을 앓고 있다’로 번역된다(J. Reiling and J. L. Swellengrebel, *A Translator's Handbook on the Gospel of Luke* [London: United Bible Societies, 1971], 234).  
 56) J. 마커스, 『앵커바이블 마가복음 I』, 333.  
 57) Robert H. Gundry, *Mark: A Commentary on His Apology for the Cross* (Grand Rapids: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 1993), 95; J. 마커스, 『앵커바이블 마가복음 I』, 333.  
 58) J. Milgrom, *Leviticus*, 818; R. A. Guelich, *Mark 1-8:26*, 73; Witherington III, *The Gospel of Mark*, 103; J. 마커스, 『앵커바이블 마가복음 I』, 222.  
 59) J. 마커스, 『앵커바이블 마가복음 I』, 334.

과 공동체로부터 분리시켜 신체적 죽음보다 못한 사회적 죽음을 가져왔으나, 예수는 그의 부정함을 정결함으로 바꾸시고 그를 사회적 죽음으로부터 부활시키신다.

“곧 λέπρα가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막 1:42). 그가 깨끗해지는 현상은, 모든 사람들이 보고 알 만큼 즉각적이고 급격한 변화로 일어났다.<sup>60)</sup> 이것은 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기적적인 것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다. “네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네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러 그들에게 입증하라”(막 1:44). 이제 λεπρός는 더 이상 제사장의 ‘진찰’(레 13:3)을 필요로 하지 않고, “예물을 드러”(레 13:4) 병이 나았다는 것을 “입증”(4절)하는 것만이 필요하다. 옛 이스라엘의 제사장은 λέπρα, 즉 구약성서의 נַעֲרָא에서 나온 사람을 진 안으로 복귀시키는 정결의식을 거행하는 일만 하면 되는 것이다(비교, 왕하 5:1-14; 민 12:13-15).<sup>61)</sup>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막 1:45). λεπρός는 이제 선교사의 전형처럼 자신이 깨끗하게 된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한다.<sup>62)</sup> 그의 병은 이제 그가 완전히 깨끗한 점을 가시적으로 증명하는 역할을 할 뿐 그에게 어떤 역할도 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므로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λέπρα가 어떤 종류의 질병이었느냐보다는 성서시대 사람들이 그 질병을 어떻게 여겼고, 그에 대해 사회적 종교적 문화적으로 어떻게 반응했느냐이다. 그러한 상황에서 λεπρός가 예수께 했던 간절한 요청과 몸짓, 또 이를 받아들이셨던 예수의 변혁적 몸짓과 말씀이 중요하다. 그 중심에 동사 καθαρίζω가 있다.

### 5.3. 동사 καθαρίζω의 번역

καθαρίζω를 그리스어 글자 그대로 옮기면 ‘깨끗하게 하다’이다. 이 동사를 글자 그대로 옮기면, 다른 여러 언어들에서는 ‘저(λεπρός)를 목욕시키실

60) W. L. Lane, *The Gospel according to Mark*, 85. 막 1:42의 병행본문인 마 8:3하반절에서는 “즉시 그의 λέπρα가 깨끗하여진지라”로, 눅 5:13하반절에서는 “λέπρα가 곧 떠나니라”로 묘사된다.

61) 또 제사장 역할은 부정한 사람이 성소 구역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음으로써 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성소를 보호하는 데 있다. 이렇게 נַעֲרָא를 가진 사람을 격리하는 이러한 관행은 공동체의 건강에 기여했다. 그러나 이러한 유익은 제의적 정결 규정들의 우선적인 취지가 아닌 부산물이었다(J. E. 하틀리, 『레위기』, 429).

62) J. 마커스, 『앵커바이블 마가복음 I』, 335-336.

수 있나이다'나 '저를 씻기실 수 있나이다', 혹은 '저에게 (물을) 부으실 수 있나이다'로 오해할 수 있는 표현이다. 그래서 어떤 언어들에서는 καθαρίζω를 '고치다'나 '치유하다', 'λέπρα가 없어지게 만들다'로 번역하기도 한다.<sup>63)</sup> 그러나 이렇게 번역을 할 경우에는 그리스어 원문에서 의도했던 제의적 정결 개념이 사라지면서 중요한 문화적 정보에 손실이 온다.

실제로, 우리말에서도 환자를 '깨끗하게 하다'는 일상어로 쓰지 않는 말이다. '깨끗하다'의 국어사전 뜻 중에 "「7」 후유증이 없이 말짱하다."<sup>64)</sup>가 있는데, 오히려 '병'(病)과 연관시켜서 읽을 때 '상처가 깨끗하게 아물다', '병이 완전히 낫다'라는 표현으로 사용된다. 이렇게 볼 때 '예수께서 ... 깨끗하게 하시다'라는 번역은, 피부 질환의 완전한 치유를 강조하는 표현으로 읽힌다. 더 나아가서는 유대교 사회의 정결 체계와 연결시켜서 부정환 피부병이 가시적으로 깨끗해지는 현상을 나타내는 표현이 될 수 있다. καθαρίζω를 번역한 우리말 역본들을 살펴보면, 독자들이 단순히 '낫다'와는 구별된 표현으로 인지하게 된 것 같다.

우리말 역본들 중 가장 오래된 『예수성교누가복음전서』(1882년)에서부터 누가복음 17:14이 "갈씩여빅납풍이간정한디라(갈 때에 백납풍이 간정한지라)"로 옮겨졌다. 이때 '간정하다'는 18세기에서 19세기에 사용하던 표현으로 19세기에는 '간정하다'로, 또 20세기에서 현재까지는 '간정(乾淨)하다'(20세기~현재)로 바뀌었는데 그 뜻은 "매우 깨끗하고 순수하다."<sup>65)</sup> 이 표현은 최초의 신약인 『예수성교전서』(1887년)에서도 유지된다. 『예수성교전서』의 마가복음 1:40에서는 "쥬아만약즐기시면능히나를간정케호소셔호니(주여 만약 즐기시면 능히 나를 간정하게 하소서 하니)"라고 번역된다.

한편 1885년의 이수정의 『마가전신약복음서언히』에서는 "네만닐질켜홀진디능(能)히나를씩끗허게호여쥬리라호디(네가 만일 즐겨할진대 능히 나를 깨끗하게 하여 주리라 한 대)"라고 옮긴다. 이후 1911년 『성경전서』에서 "쥬씩셔 만일 호고져 호시면 능히 저를 쥬긋허게 호시리이다"에 영향을 준

63) 그러므로 과테말라의 각치켈(Cakchiquel) 인디언어로는 '그가 나왔다'로 번역하고, 부르키나파소의 보보 핑어(Bobo Fing)로는 '병이 쫓겨났다'라고 번역한다. 인도네시아의 토바 바톡어(Toba Batak) 번역에서는 '병이 그에게서 풀려났다'(그가 병에게서 풀려났다)라고 옮긴다(J. Reiling and J. L. Swellengrebel, *A Translator's Handbook on the Gospel of Luke*, 235).

64)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깨끗하다", [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View.do?word\\_no=404194&searchKeywordTo=3](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View.do?word_no=404194&searchKeywordTo=3) (2021. 7. 13.).

65)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간정하다", [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View.do?word\\_no=4892&searchKeywordTo=3](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View.do?word_no=4892&searchKeywordTo=3) (2021. 7. 13.).



것으로 보이고, 이 번역이 1938년 『성경개역』에서는 “원하시면 저를 깨끗케 하실수있나이다(저를 깨끗케 하실 수 있나이다)”로, 1961년 『개역』에서는 “원하시면 저를 깨끗케 하실 수 있나이다”로, 1998년 『개역개정』에서는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로 개정되었다. 현대 역본인 1993년 『표준』과 그 개정판인 『새번역』에서도 “나를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로 그리스어를 글자 그대로 옮겼다.

이렇게 우리말 역본들이 καθαρίζω를 ‘깨끗하게 하다’로 번역할 때 적어도 ‘낫다’와는 다른 표현이라는 것을, 독자들이 그 부분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동사로 λέπρα의 피부 상태가 가시적으로 또 객관적으로 누구나 알 수 있을 정도로 급격하게 변화되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때 λέπρα는 반드시 ‘나병’으로 번역되어야 하는가?

## 6. λέπρα의 새로운 번역어 제안

앞에서 살펴본 대로 성서고고학, 주석학, 병리학, 언어학, 해석학 등 최근 학문 결과들을 고려해 보면 성서시대의 תַּעֲרָבָה와 λέπρα가 지금의 ‘한센병’이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러므로 앞으로의 번역이나 개정에서는 오늘날의 한센병이나 이를 떠올리는 용어를 채택하는 것을 피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λέπρα를 한센병과 관련이 없는 서술적인 표현을 사용해서 번역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어떤 나라에서는 ‘한센병’ 자체가 존재하지 않거나 널리 알려지지 않아 관용적인 번역(idiomatic translation)을 하기도 하고, 대안 번역으로 특수한 질병을 채택하기도 한다.<sup>66)</sup> 그러나 어떠한 하나의 질병을 대안 번역으로 삼기에 성서시대의 תַּעֲרָבָה와 λέπρα의 증상은 훨씬 광범위했다.

그러므로 현대 영어역본들에서는 תַּעֲרָבָה를 다양하게 번역하는 시도를 한다. 1970년에 출간된 NEB는 본문의 맥락에 따라 다양한 번역을 하였다. 레

66) 1960년에 나이다는 성경 번역자들이 대부분 ‘leprosy’(나병)에 해당하는 국가 공용어나 식민지어(colonial language) 용어를 빌리거나 그에 상응하는 토착어로 번역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다양한 토착어로 번역된 역본들을 소개하며 λέπρα의 다양한 번역의 가능성을 설명하였다. 스페인어로는 ‘나사로 병’(lazaro sickness)(시피보족어[Shipibo]에서 나병과 나사로[Lazarus]를 연관 짓는 표현)이라고도 하고, 멕시코 후이출어(Huichol)는 ‘피부 썩음병’(sickness of skin rotting)으로 번역하기도 한다(E. A. Nida, “The Translation of ‘Leprosy’: A brief contribution to the discussion by E. A. Nida,” *The Bible Translator* 11:2 [1960], 80-81). 첼탈어(Tzeltal)로는 ‘퀘양병’(일반적으로 모든 유형의 피부질환을 지칭하는)으로, 배로 에스키모어(Barrow Eskimo)로는 ‘부패성 퀘양’으로 번역하기도 한다(R. G. Bratcher and E. A. Nida, *A Translator's Handbook on the Gospel of Mark* [London; New York: United Bible Societies, 1961], 65).

위기 13-14장에 나오는  $\text{נֶפֶת}$ 의 번역으로 ‘a malignant skin-disease’(악성 피부병, 레 13:2, 3, 8 등 14회), “chronic skin-disease”(만성 피부병, 레 13:11, 1회), ‘skin-disease’(피부병, 3회), 중립적으로 ‘the condition’(상태, 2회), ‘his disease’(그의 질병, 1회)로 번역한다. 사람의 피부, 짠 옷감, 가죽 제품 및 집 벽의 오염 상태를 표현할 수 있는 하나의 용어를 찾을 수 없어서였다.<sup>67)</sup> NEB가 ‘malignant skin-disease’(악성 피부병, 레 13:2, 3, 8 등 14회)로 번역한 것은 이 병의 치명성을 드러내는 데 효과적인 것 같다. 그러나 이 번역어에 대해 한센병 의료 전문가인 브라운(S. G. Browne)은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하는 질환인 ‘피부암’을 의미할 수 있기 때문에 의학적으로 이의가 있다고 하였다.<sup>68)</sup> 훌스(Hulse) 또한 ‘악성’이라는 표현은 그것이 암을 의미하기 때문에 동의할 수 없다고 하였다.<sup>69)</sup> ‘악성 피부병’은 분명  $\text{נֶפֶת}$ 의 치명성과 그 병이 죽음에 가깝다는 구약성서의 다른 본문으로 미루어 볼 때 원어의 한 측면을 잘 드러낸 번역어인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그 번역어를 선택하는 순간  $\text{נֶפֶת}$ 에 전염성이 있을 수 있다는 것, 또 자연 치유가 가능할 수 있었다는 등의 다른 해석의 가능성이 줄어들게 될 수 있는 것이다.

반면에  $\text{נֶפֶת}$ 의 특징을 ‘전염성’에 초점을 맞추어 번역한 역본들도 있다. 1973년에 번역된 NIV는 레위기 13-14장의  $\text{נֶפֶת}$ 을 “infectious skin disease”(전염되기 쉬운 피부병, 레 13:2, 3, 9 등)으로 번역하였다. 그리고 각주에 ‘전통적으로 나병; 히브리어 단어는 피부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질병에 사용되었다.’라고 명시하였다.<sup>70)</sup> NET (2004년) 또한 이와 유사하게 레위기에서는 “a diseased infection”(질병 감염, 레 13:2)으로 번역하였다.

레위기 13-14장의  $\text{נֶפֶת}$ 은 분명 ‘전염성’ 성격을 드러내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말에서 “전염 피부병”<sup>71)</sup>은 “[의학] 세균, 바이러스, 진균 따위의 감염

67) NEB는 의복에 대해서는 ‘a stain of mold’(곰팡이 얼룩, 레 13:47)로, 집에 대해서는 ‘fungus infection’(곰팡이 감염, 레 14:3)이라고 다양하게 번역한다. 구약성서의 다른 본문에서도 문맥에 맞추어서 (모세의) 피부가 병들었다(출 4:6); ‘그녀(미리암)의 피부병’(민 12:1); “foul disease”(역겨운 질병, 삼하 3:29); “the disease”(질병, 왕하 5:11); ‘그(나아만)의 질병’(왕하 5:6, 7); ‘그(나아만)의 피부병’(왕하 5:2-7) 등으로 번역하기도 한다. 그러나 열왕기하에 나오는 서사 본문에서는 “leprosy”(나병, 왕하 5:1-27; 7:3; 15:5)라는 번역어가 유지된다.

68) S. G. Browne, “‘Leprosy’ in the New English Bible”, 45-46.

69) E. V. Hulse, “The Nature of Biblical ‘Leprosy’ and the Use of Alternative Medical Terms in Modern Translations”, 101; J. E. 하틀리, 『레위기』, 426 재인용.

70) NIV는 의복에서 대해서는 “mildew”(곰팡이)라는 표현을, 집에 대해서는 “a spreading mildew”(퍼지는 곰팡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그러나 NIV에 ‘leprosy’(나병)라는 용어가 본문에서 사라진 것은 아니다. 왕하 5:1-27; 7:3; 15:5과 같은 많은 서사 본문들에서 ‘leprosy’(왕하 5:1-27; 7:3; 15:5)이라는 번역이 유지된다. 위에서 언급한 각주 설명과 함께 ‘leprosy’는 26회 나오고, ‘leper’(나병환자)는 2회가 나온다.

으로 생기는 피부병. 주로 접촉으로 감염되며 무좀, 백선(白癬), 무사마귀, 고름 딱지증, 성병 따위가 있다”라는 의미이다. 성서시대 당시에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진단할 수 있는 병리학적 지식이 없었으며 그 진단을 의사가 아닌 제사장이 한 것을 감안하면,<sup>72)</sup> 이 또한 원어의 한 측면만을 드러내는 번역으로 보인다. 또 신약성서를 번역할 때 NIV는 “A man with leprosy”(나병에 걸린 사람, 막 1:40)으로, NET는 “a leper”(나병 환자, 막 1:40)로 번역하였다. 만약 NIV와 NET의 레위기  $\text{לֵפְרָת}$ 의 번역을 참고하여 신약성서 본문에서도  $\lambda\epsilon\pi\rho\alpha$ 를 ‘전염되기 쉬운 피부병’이라고 번역하면, 원문에서 드러내고 했던 정결 체계에서의 ‘부정’ 개념이 사라지고 다만 ‘피부병의 전염성’만 남게 될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text{לֵפְרָת}$ 과  $\lambda\epsilon\pi\rho\alpha$ 가 정체를 명확히 알 수는 없지만 사람들의 두려움을 유발시키기 때문에 GNT(1976년)에서는 구약성서의  $\text{לֵפְרָת}$ 과 신약성서의  $\lambda\epsilon\pi\rho\alpha$ 를 모두 일관되게 ‘dreaded skin disease’(두려운 피부병)으로 번역하였다. 이러한 번역은 <로우와 나이다 사전>에서  $\lambda\epsilon\pi\rho\alpha$ 를 ‘두려운 피부 상태’라고 설명한 것과 맥을 같이 한다. 그러나 ‘두렵다’라는 것은 “「1」 어떤 대상을 무서워하여 마음이 불안하다. 「2」 마음에 꺼리거나 염려스럽다.”<sup>73)</sup>라는 의미로 이 질병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개인적 감정을 드러내는 표현이다. 그 표현이 개인적 감정에 치우치다 보면 이 질병에 대한 사회적, 종교적, 문화적 측면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단순히 원어의 어원적 측면을 살려서 번역하는 역본들도 있다. TNK (1985년)에서는 “a scaly affection on the skin”(살갓에 비늘 같은 작용, 레 13:2)으로 번역하기도 하였고, 헐스(Hulse)도  $\text{לֵפְרָת}$ 을 ‘역겨운 비늘이 낀 피부병’(repulsive scale disease), ‘거부감을 주는 분상(粉狀) 상태’, 그리고 ‘거부감을 주는 비늘이 일어나는 상태’를 제안한 바 있고,<sup>74)</sup> 밀그롬(J. Milgrom)도 ‘비늘같은 것이 덮이는 병’(scale disease)으로 제안한 바 있다.<sup>75)</sup>

71)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전염성 피부병”, [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View.do?word\\_no=478436&searchKeywordTo=3#wordsLink](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View.do?word_no=478436&searchKeywordTo=3#wordsLink) (2021. 7. 13.). “전염성 피부병”은 “[의학] ‘전염 피부병’의 전 용어”이다.

72) 구약성서에는 ‘의사’가 ‘환자’를 진찰하거나 치료하는 장면은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 구약성서에서 ‘의사’로 번역할 수 있는 본문이 한 군데 나오는데 그 부분도 ‘의사’가 치료하는 장면이 아니라 예언자의 한탄을 담고 있는 본문이다(참고, 렘 8:22 길르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그 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함은 어찌 됨인고[『개역개정』]).

73)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두렵다”, [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View.do?word\\_no=416599&searchKeywordTo=3](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View.do?word_no=416599&searchKeywordTo=3) (2021. 7. 13.).

74) J. E. 하틀리, 『레위기』, 426에서 재인용.

75) J. Milgrom, *Leviticus*, 776-777.

그것은 תַּרְעָנָה의 어근인 ‘비늘이 생기다’와 관련이 있는데 우리말 초기 역본 들인 ‘백반증’으로 번역한 것처럼 이 또한 תַּרְעָנָה의 표면적인 증상 중 하나만을 드러내는 번역인 것이다.

이렇게 원문의 의미가 모호하고 명확하게 알 수 없을 때에 번역자들은 종종, 원문을 음역해서 남겨 두고 싶은 생각이 든다.<sup>76)</sup> 그러나 번역자 자신 뿐 아니라 독자들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음역을 번역 본문에 남겨 두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 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영어 <바우어 사전>이 ‘일반적인 용어인 심각한 피부병’(serious skin disease)으로 번역할 것을 제안한 것은, 한 가지 가능한 번역이 될 수 있다. 우리말로 ‘심각한 피부병’이라는 표현은 ‘중증 피부병’, 즉 ‘위중한 피부병’으로 읽힐 가능성이 있다. “심각하다(深刻하다)”는 “상태나 정도가 매우 깊고 중대하다. 또는 절박함이 있다.”<sup>77)</sup>라는 의미로, “환자의 건강이 심각한 상태에 있다.”라는 용례 등에서 사용된다. 또 ‘심근성피부질환(深根性皮膚疾患)’이나 ‘난치피부질환(難治皮膚疾患)’, ‘만성피부질환(慢性皮膚疾患)’ 등도 생각해 볼 수 있으나, תַּרְעָנָה와 λεπρός가 다양한 피부병을 포괄했다는 점과 의사가 아닌 “제사장이 그 피부의 병을 진찰”했다는 (레 13:3) 점을 감안해 보면, 피부병의 특정한 성격이나 종류를 드러내는 번역어는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그 병의 깊이보다는 범위, 즉 살갗에 피부병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현상을 보여주는 번역어가 더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신약성서, ‘λεπρός를 깨끗하게 하시다’(막 1:40-44; 마 8:1-4; 눅 5:12-14)에 등장하는 λεπρός는, 그 병세가 겉으로 보았을 때 심하거나 심했던 것을 누구나 확실히 알 수 있어야 한다. 또 레위기 13-14장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제의적으로 부정한 사람이라는 것을 가시적으로 알 수 있어야 하며, ‘깨끗하게 하다’(καθαρίζω) 동사와 호응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예수께서 정결 체계를 무너뜨리는 몸짓과 말씀으로 깨끗하게 되었을 때 이 병을 앓고 있는 당사자뿐 아니라 의사가 아닌 제사장까지 그가 깨끗해진 상태를 알 수 있어야 한다(막 1:44). 또 치유된 λεπρός가 다른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복음을 전파할 때 다른 사람들의 눈에도 그 결과가 확연히 드러나

76) 실제로 Complete Jewish Bible (CJB, 1998)은 λέπρα와 λεπρός를 ‘차라앗(tzara'at)’이라고 음역한다(마 8:2, 3 참조). CJB Mark 1:40 A man afflicted with tzara'at came to Yeshua and begged him on his knees, “If you are willing, you can make me clean.” … 1:42 Instantly the tzara'at left him, and he was cleansed.

77)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심각하다”, [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View.do?word\\_no=455714&searchKeywordTo=3](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View.do?word_no=455714&searchKeywordTo=3) (2021. 7. 13.).

야 한다(막 1:45). 성서시대 때 λεπρός를 진찰하는 사람은 의사가 아니라 제사장이라는 것이 중요하다(참조, 레 14:3). 무엇보다도 예수께서 그 사람에게 “네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네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러 그들에게 입증하라”(막 1:44)고 하신 말씀을 현대 성경 독자들이 읽었을 때 레위기 13-14장을 떠올리며 읽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신약성서의 λεπρός는 레위기 13-14장에 나오는 טַעַרָּא와 같은 번역어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그 병이 가시적으로 심하게 보였다는 데 초점을 맞추어 ‘심한 피부병’을 번역어로 제안할 수 있을 것이다.<sup>78)</sup> טַעַרָּא와 λεπρός가 성서시대 당시에 다양한 피부병을 지칭하는 총칭어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고려하여, 광범위한 의미를 담고 있는 ‘피부병’에 “그 정도가 지나치다”를 뜻하는 ‘심하다’의 관형사형인 ‘심한’과 조어(造語)하여 ‘심한피부병’이라는 새로운 하나의 복합어로 번역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복합어는 관형사형과 명사와의 합성으로,<sup>79)</sup> 충분히 가능한 번역이다. 이렇게 번역할 경우에 원어가 1개의 어휘로 되어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고, 또 명확한 병명이나 질병의 성격은 알 수 없으나 가시적으로 그 병증의 정도가 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특수 용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심한피부병’으로 고통받는 사람인 λεπρός는 ‘심한피부병을 앓는 사람’이라고 번역할 수 있다. “앓다”는 “「1」 병에 걸려 고통을 겪다. 「2」 마음에 근심이 있어 괴로움을 느끼다.”<sup>80)</sup>의 의미이다. 그 병에 걸린 사람은 단순히 ‘심한피부병’에 걸린 것이 아니라, 사회적, 종교적, 문화적으로 고통을 겪고 괴로움을 느꼈다는 것을 ‘앓다’로 표현하는 것이다.

이처럼 λεπρός와 טַעַרָּא의 번역어로 일반적인 용어이자 설명적인 문구인 ‘심한피부병’을 채택하는 것이 성서시대의 1차 독자들과 같은 효과로 본문의 메시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때 ‘심한피부병’과 ‘심한피

78) 이 표현은 2019년 6월 27일에 대한성서공회 성경번역자문인 박동현과 대한성서공회 번역 담당 부총무인 이두희와의 대화 중에 얻은 아이디어임을 밝힌다. 이후 2019년 8월 30일, 번역 관련 대화에서 박동현은, 레위기 13-14장의 ‘네가 차라앗’이 사람 몸에서 질병을 일으키는 것이 확실하다고 판단될 때는 ‘심한피부병’으로, 그 외에는 ‘두드러진 자국’으로 번역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필자는 2012년부터 한국한센총연합회와 수차례 소통을 한 바 있는데, 그 연합회에서도 성경을 앞으로 개정하거나 새롭게 번역할 때는 ‘심한피부병’으로 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한국한센총연합회의 2020년 9월 11일자 “성경 내 ‘한센병’ 용어 변경 요청”건 참고).

79) 국어에서 관형사형 어미 가운데 단어 형성에 참여하는 것은 주로 ‘-(으)ㄴ, -(으)ㄹ’으로, ‘어린이 … 큰아버지’는 ‘-(으)ㄴ’ 관형사형 어미에 의한 합성법이고 ‘날짐승, 열쇠’는 ‘-(으)ㄹ’ 관형사형 어미에 의한 합성법이다. ‘-는’ 관형사형도 ‘가는귀, 맺는말, 먹는장사, 세는나이, 우는소리’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합성법에 참여한다(남기심 외 3명, 『표준국어문법론』 [서울: 한국문화사, 2019], 255-257).

80)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앓다”, <https://stdict.korean.go.kr> (2021. 7. 13.).

부병을 앓는 사람’에 각주나 용어해설을 붙여서 그 종교적 의미와 그에 따른 제의적 부정(uncleanness)에 대해 설명을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 설명에는 세계성서공회연합회의 여러 연구들이 이미 언급한 대로 이전 번역어인 ‘나병’을 상기시키는 내용은 피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번역은 항상 본질적으로 선택(selectivity)과 잠정 결정(underdetermination)의 문제를 포괄하고 있다.<sup>81)</sup> 번역자가 성서시대의 1차 독자들의 정황을 고려하여 주석적, 해석학적, 인지적 함의들을 최대한 이해하려고 해도 그 정보가 명확하지 않고 원어와 대상어 사이의 언어적, 사회적, 종교적 차이 때문에 원천 본문의 모든 측면을 다 보여 줄 수 없다.<sup>82)</sup> 번역자가 하나의 번역어를 선택하는 순간 어쩔 수 없이 원천 본문의 몇 가지 측면은 잃게 되는 것이다. 이때 문제는 번역자가 하나의 어휘를 선택을 할 때 원천 본문의 어떤 측면을 유지할지를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달려 있다.<sup>83)</sup>

λέπρα를 ‘심한피부병’으로, λεπρός를 ‘심한피부병을 앓는 사람’으로 번역하는 것은, 오랫동안 성서 번역자들과 주석가들이 고심하며 제안했던 다양한 피부병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총칭어를 선택하는 것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병세의 가시성으로 제의적 정결 문제에 있어서 제사장의 진찰을 요했다는 것과 당시에 사회를 억누르고 있던 정결 체계를 무너뜨리신 예수의 변혁적 몸짓과 말씀을 고려할 때, 본문 이해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 7. 나가는 말

본 연구는 λέπρα의 우리말 성경 번역 역사를 살펴보았을 때 각 시대별 번역어들이 그 당시에는 사회적 문화적으로 가능한 번역어들이었으나 사회적 의미가 빠르게 변하면서 차별어가 되었다는 점을 고찰하였다. 그리고 그동안 서구 주요 역본들과 우리말 역본들에서 채택했던 번역어인 ‘나병(leprosy)’이 성서고고학적으로 보았을 때 성서시대에 존재했을 가능성이 거의 없고, 병리학적으로도 그 증상이 성서에 나오는 내용과 다르며, 언어

81) L. de Vries, “Paratext and Skopos of Bible Translation”, W. Smelik, A. den Hollander, U. Schmidt, eds., *Paratext and Metatext as Channels of Jewish and Christian Traditions* (Leiden: Brill Publishers, 2003), 17-35.

82) J. Y. Cho, *Politeness and Addressee Honorifics in Bible Translation* (London: United Bible Societies, 2009), 83.

83) C. Nord, *Translating as a Purposeful Activity* (Manchester: St. Jerome Publishing, 1997), 30.

의 변천 과정 중에 의미가 달라졌다는 점을 논하였다.

그리고 공관복음 모두에 나오는 ‘예수께서 λεπρός를 깨끗하게 하시다’(막 1:40-44; 마 8:1-4; 눅 5:12-14)를 분석하여 λέπρα의 병명이나 병의 종류보다는 당시의 정결 체계를 드러내면서 피부에 생긴 병이 가시적으로 완전히 나았다는 것을 드러내는 동사인 ‘깨끗하게 하다(καθαρίζω)’와 호응이 잘되는 서술적 표현으로 번역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밝혔다. 그리고 λέπρα를 앓고 있는 사람은 누가 보아도 그 병세가 겉으로 보았을 때 심하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어야 하며, 특히 독자들이 레위기 13장-14장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제의적으로 부정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야 하고 레위기의 히브리어 תַּעֲרָב과 같은 번역어여야 한다는 것을 논하였다.

그러므로 λέπρα는 포괄적 표현이자 광범위한 의미를 담고 있는 ‘피부병’과 “그 정도가 지나치다”라는 일반적인 서술어인 ‘심하다’를 조어하여 ‘**심한피부병**’이라는 특수용어를 번역어로 제안하였다. 그리고 이 ‘심한피부병’에 시달리는 λεπρός를 ‘**심한피부병을 앓는 사람**’이라고 번역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렇게 번역할 경우에 예수께서 그 병을 완전히 치유하셨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나타내면서 제의적 정결 문제를 함께 생각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이로 인해 성서시대에 존재하지 않았던 질병인, 차별과 편견으로 얼룩져 있는 ‘나병’이라는 용어로 번역하지 않아도, 예수께서 행하셨던 변혁적 치유 사역을 충분히 드러낼 수 있는 가능한 번역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해 본다.

#### <주제어>(Keywords)

성경 번역, λέπρα, λεπρός, תַּעֲרָב, 한센병.

Bible Translation, λέπρα, λεπρός, תַּעֲרָב, Hansen's Disease.

(투고 일자: 2021년 7월 15일, 심사 일자: 2021년 8월 20일, 게재 확정 일자: 2021년 10월 22일)

<참고문헌>(References)

- 계제니우스, W., 『구약성서 히브리어, 아람어 사전』, 이정의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07.
- 남기심 외 3명, 『표준국어문법론』, 서울: 한국문화사, 2019.
- 마커스, J., 『앵커바이블 마가복음 I』, 류호영, 장성민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16.
- 민영진, “우리말 성서 번역에 있어서 성차별 표현의 처리 -『성경전서 표준새번역』을 중심으로-”, 『성경원문연구』 15 (2004), 283-329.
- 민영진, 『개역개정판, 이렇게 달라졌다』, 서울: 대한성서공회, 2000.
- 바우어, W., 『바우어 헬라어 사전: 신약성경과 초기 기독교 문헌의 헬라어-한국어 사전』, 이정의 역, 서울: 생명의말씀사, 2017.
- 왕대일, “구원과 치유-성서적, 신학적 이해 부정함에서 거룩함까지, 레위기 13-14장의 경우”, 『신학과 세계』 54호(2005년 12월), 90-111.
- 유연희, “시편을 보랏빛 렌즈로 읽기”, 『성경원문연구』 25 (2009), 30-52.
- 유윤종, “*תִּלְוָה*, *λέπρα*, *λεπρός*의 올바른 이해와 번역”, 『성경원문연구』 36 (2015), 206-230.
- 이영미, “한글 성서 번역의 양성평등적 언어 활용에 관한 연구”, 『성경원문연구』 19 (2006), 47-68.
- 정중호, 『레위기 만남과 나눔의 장』, 서울: 한들출판사, 1999.
- 조지윤, “양성평등적 번역 선교: 예수와 사마리아 여인 대화(요 4:7-26)의 존재법 번역”, 『선교와 여성신학』, 서울: 프리칭아카데미, 2010, 232-261.
- 채은하, “장애인의 시각에서 본 한글 공인 번역 성경들의 장애인 호칭과 대안”, 『성경원문연구』 30 (2012), 140-160.
- 채은하, “한글 공인 성경들의 장애인 호칭과 대안-복음서와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성경원문연구』 34 (2014), 162-180.
- 채은하, “장애인 호칭의 비교와 대안 연구—히브리어 성경, 칠십인역과 한글 공인 번역 성경들을 중심으로—”, 『성경원문연구』 40 (2017), 95-116.
- 피츠마이어, 조셉 A., 『앵커바이블 누가복음 I』, 이두희, 황의무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15.
- 하틀리, 존, 『레위기』, WBC 성경주석, 김경열 역, 서울: 솔로몬, 2005.
- 홍성혁, “구약성서의 질병이해: 질병의 원인”, 『구약논단』 20 (2006), 124-146.
- Andersen, J. G., “Leprosy in Translations of the Bible”, *The Bible Translator* 31:2 (1980), 207-212.
- Bauer, W., *A Greek-English Lexicon of the New Testament and Other Early Christian Literature*, Frederick William Danker, rev. and 3d ed., Chicago; London: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0.



- Borg, M. G., *Meeting Jesus Again for the First Time*, New York: Harper San Francisco, 1994.
- Bratcher, R. G. and Nida, E. A., *A Translator's Handbook on the Gospel of Mark*, London; New York: United Bible Societies, 1961.
- Browne, S. G., "'Leprosy' in the New English Bible", *The Bible Translator* 22 (1971), 45-46.
- Browne, S. G., "Leprosy in the Bible", Bernard Palmer, ed., *Medicine and the Bible*, Carlisle: Paternoster Press, 1986.
- Cave, C. H., "The Leper: Mark 1.40-45", *NTS* 25 (1978-79), 245-250.
- Cho, J. Y., *Politeness and Addressee Honorifics in Bible Translation*, London: United Bible Societies, 2009.
- Cochrane, R. G., "Biblical Leprosy", *The Bible Translator* 12 (1961), 202-203.
- de Vries, L., "Paratext and Skopos of Bible Translation", W. Smelik, A. den Hollander, U. Schmidt, eds., *Paratext and Metatext as Channels of Jewish and Christian Traditions* (Leiden: Brill Publishers, 2003), 17-35.
- Edwards, J. R., *The Gospel according to Mark*, Grand Rapids: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2002.
- Gramberg, K. P. C. A., "'Leprosy' and the Bible", *The Bible Translator* 11 (1960), 10-23.
- Guelich, R. A., *Mark 1-8:26*, WBC, Vol. 34A, Dallas: Word Books, 1989.
- Gundry, Robert H., *Mark; A Commentary on His Apology for the Cross*, Grand Rapids: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 1993.
- Hulse, E. V., "The Nature of Biblical 'Leprosy' and the Use of Alternative Medical Terms in Modern Translations", *PEQ* 107 (1975), 87-105.
- Lake, K., "ἐμβριμησάμενος and ὀργισθεὶς, Mark 1,40-43", *HTR* 16 (1923), 197-198.
- Lane, W. L., *The Gospel according to Mark*, Grand Rapids: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 1974.
- Louw, J. P. and Nida, E. A., eds., *Greek-English Lexicon of the New Testament Based on Semantic Domains*, New York: United Bible Societies, 1988.
- Mann, C. S., *Mark: A New Translation with Introduction and Commentary*, Anchor Bible 27, New York; London; Toronto; Sydney: Doubleday, 1986.
- Milgrom, J., *Leviticus*, Anchor Bible 3, New York: Doubleday, 1991.
- Nida, E. A., "The Translation of 'Leprosy': A brief contribution to the discussion by E. A. Nida", *The Bible Translator* 11:2 (1960), 80-81.
- Nord, C., *Translating as a Purposeful Activity*, Manchester: St. Jerome Publishing,

1997.

Paton, A. E., *An Examination of the Evidence for the Existence of Leprosy and Hansen's Disease in Medieval Ireland*, Ph.D. Diss., University of Glasgow, 2014.

Reiling J. and Swellengrebel, J. L., *A Translator's Handbook on the Gospel of Luke*, London: United Bible Societies, 1971.

Swellengrebel, J. L., "'Leprosy' and the Bible: The Translation of 'Tsaráath and Lepra'", *The Bible Translator* 11 (1960), 69-79.

Wallington, D. H., "'Leprosy' and the Bible", *The Bible Translator* 12 (1961), 75-79.

Witherington III, B., *The Gospel of Mark*, Grand Rapids: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2001.

<Abstract>

**Proposal for New Korean Translation of λέπρα:  
Focusing on ‘Jesus Cleanses λεπρός’  
(Mk 1:40-45//Mt 8:1-4//Lk 5:12-14)**

Ji-Youn Cho  
(Korean Bible Society)

In order to propose a new proper Korean translation of the Greek term λέπρα, this paper historically reviews the social meanings of its translations in the established Korean versions; critically examines the original root-meanings and changing connotations of both the Hebrew term תַּעֲרָבָה and the Greek term λέπρα; and finally, exegetically analyzes ‘Jesus cleanses λεπρός’ (Mk 1:40-45, Mt 8:1-4, Lk 5:12-14).

This paper discusses the fact that the specific disease known today as Hansen’s disease did not exist in the region of Palestine prior to Alexander’s conquest of India in 324 BC, which is supported by archaeological research and Greek literature in the biblical period. Moreover, the biblical descriptions of תַּעֲרָבָה and λέπρα are pathologically different from the symptoms of modern Hansen’s disease. In the biblical period, the Greek term ἐλεφαντίασις referred to Hansen’s disease, and תַּעֲרָבָה and λέπρα to a number of other undefined skin diseases. Until the 19<sup>th</sup> century, there had been a confusion between the Latin terms *lepra* and *ēlēphantīāsis*, and the former term was eventually used as *leprosy* in English.

This paper therefore proposes that λέπρα in ‘Jesus cleanses λεπρός’ (Mk 1:40-45, Mt 8:1-4, Lk 5:12-14) should be translated into the technical term *severe-skin-disease*. This term properly reveals that the skin condition of a person suffering from λέπρα was visibly severe and recognizable by everyone including the priest in the gospels; he was ceremonially unclean, ritually defiled, and excluded from normal relations with other people according to Jewish law. The descriptive expression is also well-connected with the verb *to be cleansed* (καθαρίζω), and appropriately reveals Jesus’ complete healing ministry in the purification system of the biblical period.

This proposed translation therefore is better to properly reveal Jesus’

transformational healing ministry without translating the term λέπρα as leprosy, a term that did not exist in the biblical era and was stained with discrimination and prejudice.